

## 일반행정직렬

2017년 5급 공채 일반행정직렬 합격

임 동 훈

### I. 들어가며

이제 2차 시험이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시험에 모든 것을 집중하여 하루하루 정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옳은지 시험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고민하며 착잡한 심정으로 계신 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하루하루 불안감에 시달렸었고 합격을 한 뒤에도 지금 상황에 맞는 명쾌한 조언을 드리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음을 떠올리며, 공부시간과 생활패턴을 유지하며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이 최선의 조언이지 않을까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고 초시 때는 과목 당 하나 정도의 인강을 들었으나 재시 때는 그조차 하지 않았으며 2차 관련 스터디 경험도 전무하여 제 조언이 여러분께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고시공부에는 왕도가 없으며 각 과목별 답안의 채점기준이나 모범답안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지 참고용으로만, 혹여나 여러분이 간과한 부분이 있거나 현재 취하고 계신 방법을 보강하는 정도로만 선별하여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올해 2차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되, 최근 입문하신 분이나 이후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도 간단하게나마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 II. 전반적인 공부법

#### 1. 공부패턴과 공부시간

저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에 필수 4과목을 모두 공부하였습니다. 아침 9시에 공부를 시작하여 12시30분까지 경제학을 공부하였고, 30분 동안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행정법을 공부하였습니다. 이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 정치학을 공부한 뒤, 마찬가지로 저녁식사에 30분을 소비하고 다시 6시30분부터 8시까지 정치학을 마저 공부하였습니다. 이후 8시부터 11시까지 행정학을 공부하고 귀가하는 식으로 생활하였습니다. 딱마지 한 달에는 1주일에 3일 정도는 4과목의 공부시간을 각각 30분씩 줄이고 선택과목이었던 정보체계론을 공부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따로 길게 잡지 않고 식사 20분, 양치 5분, 나머지 5분은 이후 공부를 준비하는 등으로 30분을 배분하였고, 피곤한 경우에는 중간에 10분씩 쉬드려 있거

나 산책을 나가는 등 틈틈이 쉬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스톱워치로 순수 공부시간만을 재었을 때 10시간에서 많은 날은 13시간 반까지 나왔습니다.

주말의 경우 토요일에는 평일의 패턴을 최대한 따르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경제학, 행정법을 간단히 하고 논문과목 한 과목 정도, 선택과목을 조금 보는 식으로 생활하였고 일요일에 토요일에 못한 부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일요일에는 오전에는 교회를 나가거나 집에서 인터넷을 하면서 쉬었고 오후 2시부터는 다시 공부를 하였습니다. 매일 플래너에 그날의 순수 공부시간을 기록해두었는데 토요일에는 7~10시간, 일요일에는 5~8시간 정도의 공부를 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총 공부시간을 일요일까지 포함한 일수로 나눴을 때 평균 10시간 반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 2. 서브노트

초시 때는 서브노트를 교과서를 요약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크게 유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서브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과목에 대한 체계가 상당히 잡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외부에서 서브노트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에 집착하기보다 교과서를 보면서 체계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들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재시 때 만든 서브노트는 교과서의 내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는데 경제학의 경우에는 오답노트에 가까웠고, 행정법의 경우에는 강사님들이 엮은 쟁점정리 책에 없는 논점이나 사례연습책 또는 판례문구에 있는 좋은 표현들을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행정법의 경우에

는 각론 부분에 있어서 해당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답안을 구성할 것인지를 주로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소송의 경우에는 의의 - 소송대상 - 주민감사청구제도와의 관계 - 유형-요건 - 제소기간 등의 체계를 잡아두었고 어떻게 서술할 것인지도 미리 정리해두었습니다. 정치학,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모의고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안과 여러 제도에 대한 제 생각을 장단점과 더불어 기록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서브노트는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부량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서브노트를 만들 때 합격생 분들이 공유하신 자료를 접하였으나 그 자료를 그대로 외우기보다는 참고용 정도로 사용하고 스스로 서브노트를 만들고 이를 자주 보면서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 3. 답안작성

저는 시험장과 같은 형식의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하루에 200점 정도로, 경제학 100점, 행정법 50점 정치학, 행정학 중 한 과목을 골라서 50점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답안 작성에는 답안지를 써봤다는 점보다는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터디를 안 했기 때문에 모범답안과 비교해보면서 채점을 해봤고 모범답안의 내용이 객관적이라는 생각에 그 내용에 비춰 답안을 수정해봄으로써 객관성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터디를 하는 경우에는 스터디원끼리 답안을 서로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그들 역시 수험생이고 주관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항상 모범답안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막바지에는 경제학은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시험지에 쓸 스타일의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였고 나머지 과목은 목차만을 잡되 꼭 써봐야 되는 부분만 실제시험과 같은 스타일로 쓰는 방식으로 보다 많은 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

분량 자체는 점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량을 늘리려고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길게 늘여서 쓰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며, 간단하고 명확하게 쓰되, 독자를 그 과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가정하여 친절하고 알아듣기 쉽게 쓰도록 하면 좋은 답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분량확보를 하고 싶다면 책이나 논문을 읽어 더 많은 지식을 쌓아서 쓸 내용 자체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 Ⅲ. 과목별 공부방법

#### 1. 경제학

행정고시는 ‘경제고시’라고 할 정도로 경제학이 중요하고 합불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말을 자주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열심히 풀었는데 50점을 받은 사람도 있고 100점을 받은 사람도 있는 등 그 점수편차가 엄청나게 납니다. 특히 평균을 기준으로 합격선 -2 이내에 분포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학에서 나오는 점수편차는 수험생의 입장에서선 막중할 수밖에 없으니 이 과목에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고시 경제학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2015년도 시험과 같이 난해하게 나올 수 있고 ‘포트폴리오 밸런스’ 모형 등 국제경제학을 심도 있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난

이도에 대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공부시간을 다른 과목에도 적절히 배분하여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차 시험에 임박하신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자면, 전 범위의 내용을 충실히 복습하고 답안의 형식을 신경써야 할 것이며 특히 일반행정직렬 분들의 경우 국제경제학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황종휴 강사님의 연습책이 매우 유용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틀렸던 문제, 중요한 문제의 번호를 기록해두고 그 번호의 문제를 다시 풀면서 이해된 번호는 지우는 과정을 반복하여 문제를 줄이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마지막에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연습책 모두를 1번씩 보는 데 시간이 얼마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답안 작성 스타일을 다듬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쉬운 문제라도 시험장에서 마주하면 연습 때와 느낌이 많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문제를 서술할 수 있는 틀을 갖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김진욱 강사님의 기출문제 ZIP을 이용하여, 제가 먼저 기출문제에 대한 서술을 해보고 해설을 보면서 빠진 내용을 보충하면서 좋은 서술 방식을 모방했습니다. 3순환 모의고사의 최고 답안을 보면서 그 스타일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경제학에 대해서 답을 도출하기만 하면 된다 생각하고 최고답안을 보면서 스타일을 익히는 것은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이유로 감점을 좀 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국제경제학 부분의 경우 대응전략을 세우기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14년도까지만 해도 일반행정직렬은 거시경제론의 개방경제모형에다가 리카도, 헉서-오린 모형 등 기초적인 내용만 알면 된다고 하였지만 최근 나온 문제들은 국제경제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저는 16년도에 국제경제학 한

문제를 통째로 날린 경험이 있어 황중휴 강사님의 국제경제학 1순환을 수강하고 시험 직전까지 트리니티 국제경제학을 경제학을 공부하는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 덕분에 올해 국제경제학 문제는 수월하게 풀 수 있었지만, 국제경제학 특강만을 수강한 학생들 역시 그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풀었다는 점에서 국제경제학에 상당한 시간을 들이는 것이 우월전략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2차를 응시하시는 분들은 국제경제학을 따로 공부하기보다 짧은 특강을 듣거나 교과서를 간단히 읽는 정도로 해야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안정성 측면에서 국제경제학 1순환 정도의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2. 행정법

경제학과 더불어 수험생이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는 과목이면서, 공부한 시간만큼 성적이 나온다는 과목입니다. 행정법은 너무도 방대하여 불의타의 가능성이 있고 특히 등록, 인가 등의 개념에 명확한 법적성질을 정의하기가 어려우며 그에 따라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답을 서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은 교과서를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이라도 단지 교과서를 반복적으로 읽기만 하는 것은 중노동일뿐더러 효율성도 그리 높지 않을 것입니다. 법학전공이 아닌 경우 예비순환 또는 1순환 강의를 들으면서 교과서를 읽어 체계를 정리한 뒤, 강사님이 쟁점을 정리한 책(김기홍 강사님의 행정법 쟁점정리, 정선균 강사님의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등)을 보면서 중요한 쟁점에 대한 암기와 전체적 체계를 이해한 뒤 교과서를 회독할 때 효율성이 높을 것입니다.

행정법에 있어서 쟁점암기가 알파이자 오메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쟁점암기는 다음 과정을 위한 준비단계로 보입니다. 물론 모든 쟁점을 시험 날까지 암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시험에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쟁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쟁점암기는 수험기간 내내 계속되는 과정이며 그것은 행정법 공부에 있어 한 영역에 속합니다. 다음 단계로 행정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논리적 서술과정, 관련 논점을 빠짐없이 다루는 것, 관례를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논리적 서술과정은 문제의 제기부터 사안의 정리까지 체계적인 흐름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많이 한 학생과 적게 한 학생 간 차이가 가장 확연한 부분이지 않을까합니다. 초시 때 저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에만 충실히 답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쟁점만을 뽑아서 병렬식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시행규칙에 따라 내린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하라는 물음에는 기계적으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 처분의 위법성 여부 - 위법성의 정도를 병렬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답안을 쓸 때 시행규칙의 법적성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문제 서술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논의한다는 당위를 표시하고 그 결론에 따라 다음 개념을 서술해내는 단계적 접근을 취하니 체계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학습에는 박정훈 교수님의 행정법사례연습 책이 매우 유효했는데 이 책은 답안작성스타일로 논리적 흐름에 따라 해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쟁점별로 책이 쓰여 있어서 쟁점암기가 많이 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논점을 빠지지 않고 다루는 것인데 이는 쟁점암기가 많이 되신 분들, 교수님 저 사례집을 반복적으로 보신 분들은 대부분 충분

히 준비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저는 유효한 것 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공무원, 수형자, 군인 등의 사례가 나오면 특별권력관계 인정여부, 조례위법성의 경우 조례안의 일부무효 쟁점을 써야한다고 서브노트 앞에 써두고 암기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쟁점은 문제에서 마이너한 쟁점이겠지만 만일 나온다면 매우 간단하게라도 줄처리해서 씬으로써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다음으로 판례를 숙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교과서에 실려 있는 주요한 판례를 익히는 것 그리고 그 외의 판례를 공부하여 판례가 서술되는 논리적인 흐름과 사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판례의 문구, 표현방식을 습득하는 것은 주로 판례로 연구하는 교수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시험문제의 기반이 되는 판례를 알고 있다면 답안을 구성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학원에서 제공하는 주요판례 특강 등을 듣고 필요한 판례를 찾아 공부하는 것은 좋은 공부 방법으로 보입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 분들의 경우 그동안 공부했던 사례집이 있다면 이를 다시금 보는 것도 좋고 작성했던 답안의 논리적 흐름을 점검해보고 보완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각론과 같은 경우는 이미 기출문제, 사례집 등에서 대부분의 논점이 다뤄져있는 만큼 그 목차를 서브노트 등에 필기해두고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각론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짧은 시간 내에 체계적인 구성을 가진 답안지를 쓰는 데에 유효할 것입니다. 수험생 분들 중 각론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공부와 법전 베껴쓰기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쟁점이 정리된 책과 서브

노트를 이용하여 암기를 반복적으로 하여 빠진 부분을 최대한 매워야하며 각 쟁점이 어떤 문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도 생각하여야 합니다. 또 판례특강 등을 통해 판례에 익숙해지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 3. 정치학

정치학은 많은 수험생들을 난감하게 하는 과목일 것입니다. 정치학에는 비교정치, 민주주의론, 정치철학, 국제정치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듯하며 민주주의 역시 정치철학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민주주의론과 그 중요도를 감안할 때 정치철학을 민주주의론 외의 부분으로 두어 구분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정치는 매년 나온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므로 여기서 나오는 주요개념은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김희철 강사님의 펀더멘탈 정치학 1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할 점은 비교정치이라 하여 각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단순 나열식으로 서술하면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제도의 개념 그리고 장단점이 있다면 왜 그러한 장단이 존재하는지 등을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연습했던 것이 유효했습니다.

실제시험 때 곰곰이 생각하여 목차를 잡고 서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에 대하여 연습한대로 목차가 바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많은 생각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치학은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는 해당 주제에 대한 지식을 쌓음과 동시에 정치학적 사고방식을 연습하는 데 좋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기출문제의 물음에 대한 자신의 답변이 있다면 이를 서브노트에 적어놓고 그에 대한 근거를 보강해나가는 방식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치학은 16년 행정고시, 17년 입법고시, 행정고시 모두 괜찮은 수준의 점수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주장을 할 때 그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 비약 없이 풍부하게 댄 것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중이나 밥 먹는 중에도, 제 주장으로 타인을 설득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근거를 모색했는데 이러한 시도는 주로 많은 수험생들의 결론이 향하는 비례대표제의 확대, 참여 확대, 심의민주주의 도입 등의 답을 서술할 때 차별성을 확보하기에도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철학에 있어서는 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홉스, 로크, 칸트부터 공리주의, 자유주의 등에 대해 개략적인 개념과 키워드를 기억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법치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세 사상의 조화와 차이를 최대한 알고자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제정치학의 경우에는 국제정세의 이해 책을 기반으로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라는 세 관점을 익히고 가능하면 어떤 문제든 우선적으로 이 관점에 맞춰 정리해볼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세 관점을 익힌 뒤 책에 나오는 주요 국제정치적 이슈를 습득하고 사례를 알아두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논문은 읽을 수 있는 한 많이 읽는 것이 좋으며 여기서 나오는 주요한 개념과 설득력 있는 주장-근거의 틀을 서브노트에 적어두고 반복적으로 보는 것도 정치적 사고를 키우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비교정치학의 경우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은 개념들이 논문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바 그 중요성이 큼니다.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통계자료(예를 들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시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등) 또는 정치적 사건을 들 수 있으면 좋지만 반드시 사례를 들어야 한다는 강박에 관련성이 낮은 사례를 억

지로 끌어온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작년 시험에 촛불시위 사례와 투표율, 득표율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써본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 4. 행정학

행정학은 제가 마지막까지 가장 애를 먹었던 과목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행정학은 교과서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음으로써 전체적인 체계를 그려낼 수 있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행정학> 한권이든 교과서로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복적으로 5번 이상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처음 읽을 때는 총론 부분과 각론 부분을 분리하여 보겠지만 이후 체계가 눈에 들어오면 이 둘을 잘 엮어내는 것이 고득점으로 이어지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행정부패 등의 사례를 다룰 때 인사나 재무의 내용을 끌어오고, 각론부분의 문제를 다룰 때 총론부분의 일반론을 적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특히총론부분의 행정문화, 행정이론 등에 대한 여러 내용과 각론에 나타나는 여러 제도의 특징, 장단점을 지속적으로 공부하다보면 이들을 잘 연결지어 창의성 있는 주장과 이에 대한 설득력 근거도 딸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발상들을 서브노트에 적어두고 공부한다면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좋은 답안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학은 목차가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목차작성을 공부함에 있어서 송운현 박사님의 <프리미어 행정학 2>가 매우 유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습득한 행정학 개념을 서술함에 있어서 어떤 단어와 표현으로 목차화 하면 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신 분들은 그 간의 틀을 유지하면서 조금 보완하는 정도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이용하여

목차화를 배우면 행정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방향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전직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하시는 만큼 좋은 자료를 구하기가 용이합니다. 교과서에 간략히 서술되어 있거나 제대로 다루지지 않은 부분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논문을 통하여 추가적인 개념들을 서브노트에 기록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자료는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의 유용성이 큰데 이는 내용을 정리함과 동시에 좋은 주장과 근거의 묶음을 찾을 수 있고 이를 목차화하는 법을 배우기도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의고사는 모범답안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답안을 작성할 때 주관이 강하게 나타나고 편향될 수 있는 논문과목에 있어서 서술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문제에 대해 서술하는 틀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조적 관점, 문화적 관점, 환경적 관점으로 구분하는 틀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틀에 따라 어떻게 서술이 되는지 어떠한 문제에 어떠한 관점을 적용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은 시험문제를 받았을 때 빠르게 목차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5. 정보체계론

많은 합격수기에서 정보체계론은 공부할 것이 많이 없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러한 말을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겪어보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보체계론은 정경호 강사님의 3순환만 듣고 그에 따른 강의자료만 잘 본다면 고득점은 어렵겠지만 합격에 충분한 점수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보체계론의 답안을 직접 써보는 것은 실제시험을 제외하면 한번도 하지 않았으며 3순환 모의고사의 모범답안과 최고답안을 보면서 목차만 구성해

보고 주요 개념이나 사례 등을 정리하는 방식의 공부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정보체계론의 공부량이 적은 것은 그 서술스타일이 행정학과 겹쳐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 답안을 작성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정보체계론을 등한시했다가는 난감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모의고사를 써보지 않은 것은 제가 공부하는 정도로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시험문제를 풀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기출문제를 먼저 써보고 불안하다 싶으면 답안지 특강 등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합니다.

## IV. 마치며

막판 한 달이면 많은 것을 뒤집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그간의 노력이 갖춰졌을 때 가능한 말로 생각합니다. 서브노트를 작성하고 책을 여러 번 읽어왔다면 매우 빠른 시간 내에 한 과목의 시험범위를 전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반이 갖춰졌다면 1주일의 차이는 전 과목의 시험범위를 한번 이상 더 보았는지 아닌지의 차이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게으름 이겨내고 하루하루 노력을 성실히 쌓아왔다면 나머지 한 달은 여러분의 합격을 가능하게 하고 확정짓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도 마지막까지 불확실성에서 고통 받았고 다른 합격수기와 제 생활을 비교해보면서 수없이 좌절했으며 잘못된 진로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간직했던 꿈을 떠올리며 절박하게 희망을 붙잡았고 결국엔 해낼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 분들 어렵고 힘든 길을 너무도 잘 버텨오셨습니다. 남은 기간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꼭 합격 하셔서 큰 기쁨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